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3308

2006년 2월
미술교육석사 학위 논문

한국화 표현의 능률적 지도에 관한 연구

-중학교 미술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최 선 명

한국화 표현의 능률적 지도에 관한 연구

-중학교 미술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 Teaching of the Korean Painting Expression

-With a Special Emphasis on Middle School Art Curriculum-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 전공

최 선 명

한국화 표현의 능률적 지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대 원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 전공

최 선 명

최선명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양 계 남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종 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대 원 인

2005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ii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3

Ⅱ. 이론적 배경 4

1. 한국화의 개념과 특징 4
2. 선행연구 분석 7

Ⅲ. 중학교 한국화 교육과정 학습자료 분석 9

1. 한국화 교육관련 학습자료 9
1.1 미술 교과서의 역할 및 한국화 내용 9
1.2 미술 교과서에 대한 내용 11
2. 한국화 학습교재 분석 14
2.1 목표 14
2.2 내용 14
2.3 한국화를 중점으로 본 교과서 분석 15

Ⅳ. 한국화 표현의 능률적 지도방안 21

1. 요소별 지도방안 21
1.1 지도 목표 23

1.2 지도상의 유의점 23
2. 표현 지도방안 24
3. 기본기법 지도방향 25
4. 능률적 지도 자료 제작 29
4.1 한국화 수업의 지도계획 29
4.2 학습지도 내용 및 전개방안 36
5.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9
5.1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 49
5.2 한국화 교육의 개선방안 50

Ⅴ. 결론 52

참고문헌 54
부　　록 56

표 목 차

<표 1> 교육과정에 제시된 1.2학년 미술과의 내용 15
<표 2> 학년별 교과서 지도내용 17
<표 3> 학년별 교과서에 실린 한국화 감상 작품 분석 19
<표 4> 중등학교 3학년 미술교과서 중 한국화가 차지하는 비중 20
<표 5> 학년별 한국화 지도 내용 25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 Teaching of the Korean Painting Expression

-With a Special Emphasis on Middle School Art Curriculum-

Choi Seon myeong
Advisor : Prof. Kim Dae-won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Nowadays there are not many opportunities for the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to be exposed to Korean paintings as middle school art education is focused on teaching western art.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task to develop the creativity of individuals and provide the basis for developing traditional Korean art by emphasizing the expression of the inner world of Korean art through various expressive activities. These days the education of Korean art stops at the completion of the curriculum in middle school art education, and the students who are accustomed to the foreign cultures are prone to have negative and contemptuous view-point toward the Korean art and cul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developing the aesthetic emotion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the teaching of Korean painting, the appreciation of various art works and expressive activities.

This study is done by referring to preceding researches and documents and its objects of the application are middle school students. If we could teach the young generation by appropriate teaching method and give them various opportunities of appreciating Korean paintings, I'm sure, Korean art would

develop creatively with the self-reliance of Korean people and culture, accommodating modern sensibility.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미술교육이란 교육의 주체인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며, 정적이 아니고 역동적인 인간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발달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미술의 필요성은 인간이 아름답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술교육은 표현이나 기술만을 가르치기 위한 기능교육이 아니라 “인간교육”의 관점에서 풍부한 창의성, 그리고 개성을 지닌 “미술적 품성”을 기르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미술교사는 명랑하고 친절한 격려로 학습자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일깨워 자기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세계화의 구호 속에서 서구의 문물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것은 서구의 것에 비해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우리는 주위에서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빈 수레의 울림 같이 말로만 우리의 것을 찾는다고 부르짖고 있을 뿐 실제로 교육의 장에서는 우리의 것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보다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암담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형태로 말미암아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성장 과정상 심연의 시기라 할 수 있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참된 인간으로 형성되기 위한 많은 갈등과 고뇌의 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들로 하여금 민족적인 것을 일깨우는 일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과정을 살펴 볼 때 유치원에서부터 서양의 표현 기법을 배우며 서양의 표현기법에 익숙해져 ‘사의’보다는 ‘사실’적인 것에 치우쳐져 전통미술, 특히 한국화 표현기법에는 친숙하게 접해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대부분이 서양의 표현기법에 익숙해 있어 한국화의 지도에 있어서는 외형상의 모방, 답습에 의한 약간의 표현활동으로만 지도하고 있어 학생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조형 활동과 그 지도의 현장이 서구화 일색으로 진행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 한국화의 의미를 벗어난 우리 전통의 그림, 즉 한국화의 독특한 예술성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우리 문화 창조의 창의성을 발견하여 한국민의 긍지와 독창적인 우리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기초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문제점을 교육에 있다고 보고 미술의 사상적 배경, 한국화의 개념, 학교 수업에서의 한국화 실기지도의 실태와 현행 8종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고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쉽게 우리 미술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화 지도내용의 설정과, 지도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한국화 실기에 접근한다면 한국화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전통미술을 익히며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어 질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요약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미술의 영역 중, 학생들이 우리미술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문헌과 현행 교과서를 분석하여 중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한국화 교육을 통한 한국화(수묵화)의 실기지도 방법을 모색하여 능률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해 보았다.[1)]

1) 김세열, 『중등미술교육에 있어서의 한국화 학습에 관한 연구』(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8)

2. 연구의 방법

먼저 한국화 교육의 특징과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화 교육과정의 변천사를 살펴봄으로써 한국화 교육의 발전과정과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구성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미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계승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들의 연구에 준거하여 틀을 마련코자 각종의 문헌들을 기초로 하였으며, 준거 틀의 세부적 연구를 위하여 기존의 선행되어진 연구서 및 논문등과 해당 웹싸이트(Web site)를 통하여 본 연구의 마무리로 갈음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화의 개념과 특징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화라는 용어는 문화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동양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이 '국화(國畵)', '일본화(日本畵)'라는 용어사용으로 세계적으로 자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일본이 조선화(朝鮮畵)라는 표현 대신 동양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후에 줄곧 동양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80년 이후 문화주체성 회복 노력의 결과로 관전인 국전에서 공식적으로 '조선화'를 사용함으로써 그 올바른 표현을 찾게 되었다.

한국화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한국화는 종이나 비단 위에 먹이나 물에 녹는 안료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모필로 그리며, 동양적 자연관과 가치관에 바탕을 둔 회화관과 화론에 입각하여 주로 중국의 전통회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한국 특유의 양식을 형성하여 왔다.[2] 하지만, 사전적 정의만을 참고한다면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특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자.[3]

한국화는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나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는 그림이기보다는 대상과 작가의 정신성, 즉 사의를 중시하는 그림이다. 다시 말해 화가가 관찰하고 사색하고 느낀 것을 한 폭의 화면에 그대로 담아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시야 내의 사물을 관찰하여 얻는 결과를 한 화면에 구성하게 되어 여러 개의 시점이 생겨난다.[4] 그리하여 한 폭의 산수화를 보고 있노라면 그림 속의 자연을 여행하고 있듯이 자연스레 시점이 이동하게 된다.

---

2) 동아 백과사전 29권, (서울 : 동아출판사, 1990), p.463.

3) 여재섭, 『수묵화』 (서울 : 형설 출판사), p.7~8.

4) 진조복 저, 김상철 역, 『동양화의 이해』(서울, 시각과 언어, 1995), p.39~53.

그렇기 때문에 화폭의 시점과 시선은 통일되지 않았으나 시선의 방향은 일정하여 보는 이가 전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화의 그림은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이라 말 할 수 있다. 본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묘사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이다.

또한, 동양화가들은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효과적인 표현과 화면의 예술성을 중시하므로 자신의 느낌을 또는 그 대상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배치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사혁(謝赫)[5]이 지은 <고화품록(古畵品錄)> 에서는 이것을 '경영위치(經營位置)'라 하며, 이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배치하고 재단한다.'[6]고 설명 하였다.

그리고 한국화는 재료가 무엇이든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정신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앞서 사혁의 육법 중 첫 번째인 기운생동(氣運生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그 당시에 인물화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인물의 정신적인 면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였으나,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산수화나 화조화 등에서도 화면전체에 이르는 생동감을 뜻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에 대한 관찰과 체험을 통하여 대상의 특성과 본질을 충분히 파악한 연후에 그림을 그린다. 이것을 '배의(背擬)'라 한다. 선비들이 사군자를 그릴 때 직접화분을 앞에 두고 그 모양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들을 오래 관찰하고 옆에 두고 보는 동안의 느낌을 그대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화에서의 '선'은 가장 기본이 되는 조형방법으로 한국화를 선

---

5) 사혁(500~535년경 활동)은 중국 남조시대의 인물화가이며 이론가로 '고화품록'을 저술하였으며 이 책에서 최초로 육법론(六法論)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오랫동안 동양화 비평의 기준이 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①기운생동(氣運生動) : 대상의 본질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작가의 주관적 개성과 정신력의 기품이 넘치며 생명력을 표현하는 화법을 말한다.
②골법용법(骨法用法) : 필치에 힘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운필에 의하여 나타나는 형태 속에서 골격을 형성한다.
③응물상형(應物象形) : 사생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을 보고 사실적인 형체를 중시하여, 사상하는 것이다.
④수류부채(隨類賦彩) : 색채의 표현을 뜻하는 것으로서 대상의 종류에 따라 색을 구별하여 칠한다.
⑤경영위치(經營位置) : 구도를 뜻한다. 화면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형사의 배치를 뜻한다.
⑥전이모사(轉移摸寫) : 묘화의 기법을 수련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화법을 묘사를 통하여 체득하는 것이다.

6) 연속간행물,"가나아트", 『서울, 가나아트, 통권 53 』(1999), p.63.

의 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사군자, 산수화, 인물화, 채색화에 이르기까지 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사혁은 육법에서 골법용필(骨法用法)을 두 번째로 두었는데 이는 '선으로 사물의 형태와 짜임새를 개괄하여 표현하는 것'[7]을 말한다.

용법의 표현 기법은 선을 포함한 점(點), 면(面), 찰(擦), 준(皴)이 있으며, 용필은 방(方), 원(圓), 측(側), 전(轉), 돈(頓), 좌(挫)등이 있으며, 용묵은 농(濃), 담(淡), 건(乾), 습(濕), 흑(黑), 백(白) 등이 있다.[8]

한국화에서 용법이란 단순히 조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모양과 정신, 전신, 사의 등도 표현하는 것으로, 필법은 대상이 되는 사물의 형태와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며, 묵법은 이러한 대상의 농담과 허실, 심지어는 부피와 질감까지 표현하는 것이다.[9]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화에서는 첫째, 자연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요약해서 그린다. 대상을 생략하기 때문에 화면은 간소한 상태로 추상적인 형태를 이룬다. 특히 남종화에서 현저히 나타나는 특색이다.

둘째, 한국화는 '선' 위주이다. 서양화에서 선은 물체의 윤곽을 그리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나, 수묵화에서는 선 자체가 곧 '형상'을 이룬다.

셋째, 여백과 공간을 살린다. 묵화에서 여백은 의식적인 계획에 의해서 남겨놓는 공백으로 단순히 칠하고 남은 종이 흰 부분이 아니다. 또 여백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면 밖을 연상하게 하며, 3차원의 세계를 암시하며 화면 깊숙이 빠져들게 하는 매력을 준다.

넷째, 먹빛의 윤택과 자연스러운 변화 그리고 화선지에 스며드는 변화가 주는 무한한 아름다움이 있다. [10]

---

7) 진조복 저, 김상철 역, 앞의 책, p.90.

8) 진조복 저, 김상철 역. 앞의 책, p.113.

9) 진조복 저, 김상철 역, 앞의 책. p.114.

10) 이소윤. 『중학교 한국화 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12)

2. 선행연구 분석

중학교 한국화 교육의 교육목적은 우리 민족의 전통의 미를 이해하고 표현하여 세계화, 국제화 되어 가는 시대상황 속에서 주체성을 가진 한국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효과적인 수업운영이 어렵다는 데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선행연구의 결과 현재 시행되는 한국화 수업의 대부분은 이론·지식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현을 통한 실기 수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특히 중학교 1학년 시기가 한국화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지는 바,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미적 경험과 수묵화 표현을 통하여 보다 재미있고 효과적인 한국화 수업지도 방법을 찾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한국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중학교 미술과목에서의 한국화 교육 영역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한국화 수업모형을 만들어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따르면 한국화에 대한 지식전달 위주의 이론수업 보다는 창작 표현 중심의 실기수업이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갖는데 훨씬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정책상 점차로 미술과목의 수업시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실기수업을 하기에 어려워지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미술과의 단위시간을 줄여나가는 정책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 지도 방법면에서는 교사 중심의 획일화된 체본이나 모사 위주의 수업보다는 학생 중심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수업과정이 학생들의 정서 교육과 창의력을 계발시키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본과정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은 동기유발 측면에서 흥미를 증대시키는 면이 있지만, 체본만 답습하게 하거나 모사위주의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셋째, 교육 환경면에서 수묵화 실기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실보다 넓은 책상과 개수대 시설이 잘되어 있는 특별 교실(미술실· 가사실· 과학실· 기술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학생들이 쓰기 쉬운 수묵화 재료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에서 미술과 실기 수업을 위한 학교 예산을 책정하여 학생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물품(벼루, 먹물, 담요 등)들을 구입해 놓고 수업을 하면 더욱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서양화적인 회화개념에 익숙해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화에 대한 인식을 한꺼번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紙)·필(筆)·묵(墨)을 손쉽게 접하게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심층에 잠재해 있는 한국적인 미를 일깨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제작한 그림을 본 후 분석결과 앞으로 한국화 교육을 자주 가지게 한다면 이들은 충분히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세계 속에서 빛나도록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이다.

---

11) Bruce Joyce 외 저, 김종석 외 역(1992).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성원사.

Ⅲ. 중학교 한국화 교육과정 학습자료 분석

1. 한국화 교육관련 학습자료

1.1 미술 교과서의 역할 및 한국화 내용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학습내용과 참고 도판이나 설명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찬한 것이다.

미술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서 그 분야가 지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자보다는 도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시각적이고 감상적이며, 학습자는 도판을 통해 다양한 창조적 조형미를 직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조적 사고 능력 등의 전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간략한 도움 글을 통해 제작과정, 표현상의 유의점도 배울 수 있다.

여기서 미술 교과서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판의 역할로서 교과서의 많은 도판들은 학생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주며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을 간접적으로 경험시켜 줄 것이다. 또한 도판들은 학생들에게 창작 의욕의 촉진 말고도 '무엇을 그렸는가?' '어떻게 그렸는가?' 하는 소재의 선택과 표현 양식들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물 그리기에서 도판 세 가지가 모두 '과일' 이라면 이야말로 유일한 정물의 소재로 오해 할 수 있으며, 풍경 그리기에서 도판이 모두 인상주의적 표현기법이라면 풍경화는 그러한 기법으로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과서의 도판은 소재와 양식적 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움 글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단락마다 제시되고 있는 학습목표의 진술 내용이다. 이것은 앞서 밝힌 도판의 역할과는 달리 학습자의 태도를 정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을 어떻게 그렸는가?', '왜

그렇게 그렸는가?'를 개념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학습자의 주체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다양하게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가 주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품의 제작과정 학습과정 속에 필요한 이론적 내용도 기본적 과정으로서 필요하다. 조형의 기본원리를 몰라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학습자의 개성과 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의 특징과 표현효과, 사용방법, 이상적인 표현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술 학습에 있어서 교과서의 역할을 정리해 보았다. 그렇지만 교과서 자체가 학습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반드시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 학습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학습현장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배격해서는 더욱 곤란하다. 교사는 사전에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하게 감상,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 밖의 지역사회나 학습 집단의 특성에 알맞은 보조 자료들을 개발하여 지도함으로서 질 좋은 미술 수업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체적인 지침서이며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학습 자료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 교과서는 학생으로 하여금 '한국화'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우리 미술 교과서는 너무 많은 양의 외국 작가와 서양 미술 중심과 기성작가의 작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과서가 계속 개편되어 많은 보완이 이루어 졌다. 현행교육과정에서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 영역에 걸쳐 발상지도나 지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을 관련시켜 학습의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작품감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12)]

---

12) 윤양희, 박소영, 서석래,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2001)

현행 8종 교과서의 한국화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모든 미술교과서의 한국화의 작품수가 전체 작품수의 5~6%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화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행 교과서의 한국화 작품 기법별 분류에 의하면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화의 기법은 대체적으로 수묵담채화가 가장 많고, 교과서에 따라 채색화나 수묵화에 편중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화의 소재별 분류를 보면 대체적으로 풍경화가 가장 많이 실려 있으며, 교과서에 따라 인물화, 정물화 순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따라 학생 작품 수 보다는 기성작가 위주의 도판이 많이 실려 있어 작가 위주의 편중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산수화 위주가 아닌 생활주변의 일상적 풍경을 소재로 하여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는 생활의 미화가 곧 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변의 일상적인 소재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또 생활 주변의 소재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 준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1.2 미술 교과서에 대한 내용

현재 미술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에 맞추어 제6차 교육과정을 개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체계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정하였다.

첫째, 미술과 특성을 살리는 가운데 현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정신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미술과 교육 과정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였다.

둘째,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중점 방향으로 제시했던 개성, 창조, 정서교육으로서의 교과 성격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내용 구성에 있어서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을 중심으로 정선하여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한다.

셋째, 미술과 학습 내용에서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의 계획성, 계열성, 종합성이 유지되도록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학습자의 관심, 흥미, 필요, 요구를 반영

하며, 나아가 미술을 생활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통 미술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였으며, 미적 감수성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감상 교육을 강화하였다.

미술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미술교과 내용은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 졌다.

미적체험활동 영역은 중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게 하며, 자연과 조형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애호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학교(7, 8, 9학년) 수준에서는 대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발견하여 활용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10학년) 수준에서는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표현활동 영역은 초등학교(3, 4, 5, 6학년) 수준에서는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게 함으로서 표현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창의적인 활동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고 중학교(7, 8, 9학년) 수준에서는 발상력을 북돋워 주제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줌으로서 창의적 표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10학년) 수준에서는 의도한 것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감상활동 영역은 초등학교(3, 4, 5, 6학년) 수준에서는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보는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미술품의 특징을 이해하며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중학교(7, 8, 9학년) 수준에서는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보는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시대와 양식에 따른 미술품의 특성을 이해하며

존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10학년)수준에서는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시대와 양식에 따른 미술품의 배경을 이해하며 존중하도록 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 시대와 제2차 교육과정시대는 외국교육 사조에 따른 미술교육의 접목시대로서 우리나라 미술교육을 서양의 미술교육 사조에 맞추려고 노력하였던 시대이다. 특히 제1차 교육과정시대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창조주의미술교육이 도입되어 새로운 미술교육이 시작되는 시대이다. 제2차 교육과정시대는 외국의 미술교육 이론이 많이 도입되어 새로운 창조주의 미술교육과 구성주의 미술교육이 상호 관련을 맺으며 합리적인 미술교육 방법이 모색되는 시기이다.

제3차 교육과정시대는 외국의 미술교육사조를 탈피하고 한국적인 미술교육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과 내용을 체계화하였으며, 기능 표현을 강화하고 다양한 표현방법을 탐구하는 시기였다. 제4차 교육과정시대의 미술교육은 「미술을 위한 교육」보다「교육을 위한 미술」에 관점을 두고 미술교육을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정착, 발전시키려는 시대이다. 제5차 교육과정은 통합교육과 인간교육을 강조하고 장르별로 교육하던 것을 허물어 학습자의 특성을 상조한 미술교육을 한 시기이고, 제6차 교육과정은 미술의 이해를 도입하고 생활과 밀접한 교육을 강조하며 중학교도 영역을 거의 허물었던 시기이다. 현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기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1학년까지 묶어서 하나의 체제로 구성함으로서 학교 급별 차이에 따른 연속성이나 연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미술교육과정을 체계화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13)]

13)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미술교육학』(교육과학사, 2001), p.146~p.152.

2. 한국화 학습교재 분석

본 연구를 위한 교육과정상의 특징 및 교과서의 구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2.1 목표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미술과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첫째,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한다. 둘째,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셋째,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문화유산을 존중한다.

2.2 내용

미술과 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내용 구성에 있어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필수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미적 체험', '감상 영역'으로 이루어진 내용 체계를 이루었으며, '미적 체험', '표현' 및 '감상'은 학습 활동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표현'활동 영역에서는 '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재료와 용구'의 네 가지 기본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표현 활동 시 기본적으로 이를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현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미술과 내용을 중등학교 1.2학년을 함께 묶어서 제시하였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발달단계에 따라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표현 활동이 강조된 반면, 고등학교로 갈수록 미술에 대한 교양과 미적인 안목을 발달시키고자 감상 활동이 강조되었다.

한국화 학습내용은 6차 교육과정에 있었던 1·2학년의 한 가지 색으로 그리기는 삭제되고 3학년부터 수묵화만을 다루었던 한국화를 수묵채색화도 다루게

하였으며, 한국화의 특징인 여러 가지 선의 변화를 표현하고 형태를 선으로 표현하게 하여 한국화의 기초 학습을 익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영역마다 한국화 감상 시간을 두어 한국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한국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2.3 한국화를 중점으로 본 교과서 분석

본 연구를 위한 교육과정상의 특징 및 교과서 구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가) 학습 영역별 한국화 지도내용 조사

교육과정상 제시된 1.2학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교육과정에 제시된 *1.2*학년 미술과의 내용

영역	필수 학습요소	중학교 1.2학년 미술과 내용
1.미적 체험	(1)자연미 발견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다. ① 자연물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비교한다. ② 자연과 조형물의 형과 색에서 변화를 발견한다.
	(2)조형미 발견	생활에서 자연과 조형물의 특징을 발견하고,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① 자연의 특징을 살린 조형물을 찾아본다. ② 자연과 조형물의 조화를 발견한다.

2.표현	(1)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을 생각하여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다. ①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을 나타낸다. ②모양과 쓸모를 생각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을 나타낸다. ③ 평이한 한글로 나타낸다.
2.표현	(2)표현 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생각하여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알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나타낸다. ② 판본체, 궁체로 쓴다.
	(3)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고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형, 색, 질감, 동세, 양감, 공간 등을 생각하여 나타낸다. ② 문자의 짜임새, 점획의 변화 등을 익혀서 쓴다.
	(4)표현 재료와 용구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탐색하여 표현 할 수 있다. ① 여러 가지 재료의 성질을 살려서 나타낸다. ② 용구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고 활용한다.
3.감상	(1)서로의 작품 감상	작품을 보는 것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에서 표현의 특징을 찾아본다. ②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을 보고, 표현의 차이에 관하여 토론한다.
	(2)미술품 감상	우리 고장과 다른 나라 미술품의 특징을 찾아 설명 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에서 표현의 특징을 찾아본다. ②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을 보고, 표현의 차이에 관하여 토론 한다.

〈표 2〉 학년별 교과서의 한국화 지도내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1)한국화의 개념		·수묵화와 수묵담채화의 차이점	·소재에 따른 한국화의 종류	·채색화의 종류
2)한국화의 특징	선	·한국화에서 선의 중요성 ·여러 종류의 선과 느낌	·대상을 단순화하여 선으로 함축하여 표현하기	
	여백			·여백의 느낌 ·여백의 표현
	농담	·농담의 뜻 ·물을 섞는 양에 따른 먹빛의 효과	·농담의 표현에 따른 대상의 무게감 ·농담의 표현에 따른 대상의 거리감	
3)수묵화 그리는 자세와 태도		·바른자세와 맑은 정신		
4)한국화 재료와 용구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설명		
5)한국화의 표현 기법 및 필법		·호의 모양(원필, 방필, 파필)에 따라 선의 효과와 붓의 기울기에 따른 변화 ·점과 면의 표현	·기법(구륵법, 몰골법)에 따른 표현 효과	
6)농담의 단계적 표현		·화선지 위에서의 혼합	·혼합	
7)수묵의 번짐 및 물기조절		·붓의 물기가 중간 정도인 윤필법	·붓의 물기를 뺀 갈필법과 물기가 많은 발묵법	·적묵법과 파묵법
8)먹과 물감의 사용법		·먹과 물감의 혼합 방법	·먹과 물감의 사용 순서를 달리했을 때의 표현 효과	·진채화의 채색방법

9)한국화 제작 과정	·수묵 담채화의 제작 과정		·채색화 제작과정 ·수묵화 단순화 과정과 제작과정
10)사군자			·문인화와 사군자에 대해서 설명
11)아교의 사용			·진채화 제작시 물과 물감과 혼합 사용방법 ·수묵으로 그릴 때 아교의 번지기 효과
12)낙관		·낙관의 용도 ·전각방법	·전체화면 구성을 보면서 완성작에 낙관하기
13)배접과 표구			·배접과 표구의 필요성 설명

14)

중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지만 흥미유발단계, 기초표현 단계는 3학년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 3학년 한국화 지도내용도 조사하였으며 3학년은 여러 가지 재료로 나타내기 등으로 조사 되었다.

14) 김세열, 『중등미술교육에 있어서의 한국화 학습에 관한 연구』(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표 3〉 학년별 교과서에 실린 한국화 작품감상 분석

1학년			
학습목표	관련작품	학습내용	비 중
·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제와 표현의 특징을 발견한다. · 미술품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수묵담채 : 김홍도	· 「벼 타작」(그림1), 일하는 농부와 이를 감시하는 양반 등 당시 생활상을 독특한 유머와 풍자로 표현함.	· 12개 작품 중 1개
2학년			
· 다양한 미술품을 보고, 표현요소와 원리를 이해한다. · 여러 가지 미술품을 비교하여 표현 방법의 차이점을 안다.	· 수묵담채 : 이명기	· 「서직수 초상」(그림2), 전통적인 초상화 기법, 반듯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주인공의 기품이 잘 나타남.	· 14개중 작품 2개
	· 사진 : 석탑 (삼국시대)	· 「정림사지 5층탑」(그림3),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각층의 크기와 높이가 적당한 비례로 작아져 안정감을 준다.	
3학년			
· 각 나라의 시대별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 청동기 : 암각화(그림4), 청동거울(그림5)		· 86개 작품 중 32개
	· 삼국시대 : 백호도(그림6), 금관장식(그림7), 첨성대(그림8), 천마도(그림9), 토기(그림10),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그림11) 등		
	· 통일신라시대 : 다보탑(그림12), 11면 관음보살상(그림13)		
	· 고려시대 : 월정사 8각 9층 석탑(그림14), 삼강청자(그림15), 수월관음도(그림16), 향로(그림17)		
	· 조선시대 : 숭례문(그림18), 분청사기(그림19), 백자(그림20), 초충도(그림21), 죽장(그림22), 책장(그림23), 달마도(그림24), 묘작도(그림25), 수묵화		
	· 현대한국화 : 후채, 수묵담채		

15)

〈표 4〉 중학교 3학년 미술교과서 중 한국화가 차지하는 비중

기법 \ 학년	3학년	%
한국화기법	9	5.5
서양화 기법	24	23.5
조소 기법	17	15.5
판화기법	6	4.6
꾸미기와 만들기	42	36.6
사진	8	6.7
붓글씨	9	7.6
합계	115	100

〈표 8〉에서 현재 3학년의 교과서 수록 작품수를 보면 한국화 기법(5.5%), 서양화 기법(23.5%), 조소 기법(15.5%), 판화 기법(4.6%), 꾸미기와 만들기 기법(36.6%), 사진(6.7%), 붓글씨(7.6%)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보여준다. 교과서의 수록 작품을 영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배정해 학생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15) 김세열.『중등미술교육에 있어서의 한국화 학습에 관한 연구』(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Ⅳ. 한국화 표현의 능률적 지도방안

1. 요소별 지도방안

한국화를 분류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먹의 사용일 것이다. 먹을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따라 수묵화, 수묵담채화, 채색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묵화(水墨畵)는 채색을 쓰지 않고 먹의 농담에 의하여 짙고 엷게, 또는 먹물의 번짐 등의 효과로 묵회(墨繪) 또는 묵화(墨畵)라고 한다. 즉 채색화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중국의 당나라 중엽부터 시작되었으며 왕유를 시조로 하는 남종화에서 그려졌다. 주로 문인, 사대부들이 즐겨 그렸으며 우리나라에는 송, 원나라의 영향으로 고려 후기에 들어와 조선시대에 문인화로 성행하였다.[16)]

수묵담채화(水墨淡彩畵)는 수묵을 위주로 그리되 옅은 채색을 함께 그리는 기법을 말한다. 우선 수묵으로 기본 바탕을 그리고 그 위에 엷게 채색하는 것으로 수묵과 채색의 중간의 효과를 나타낸다.

채색화(彩色畵)는 먹보다는 색이 있는 물감을 위주로 그리는 기법으로 북종화 계열로 분류하기도 하였고, 그 색이 진하여 민화나 탱화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벽화를 그리는 데에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채색화는 대상의 형태를 선으로 먼저 그리고 그 안을 색으로 메우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전통적으로 오행설을 바탕으로 서(西)를 뜻하는 백(白), 남(南)을 뜻하는 적(赤), 동(東)을 칭하는 청(靑), 북(北)에 해당하는 흑(黑), 그리고 중간(中間)에 위치하는 황(黃)의 다섯 가지 색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현대적인 개념의 채색화는 다양한 색과 오브제를 이용하여 벽화적인 느낌이나 추상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17)]

---

16) 편집부, 『입시 동양화』(도서출판 재원, 1996), p.12.

17) 전희숙, 『표현력 신장을 위한 필묵법의 단계적 지도 방법 연구』(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 2003), p.5.

이런 한국화를 표현하는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한데 중학교에서 꼭 배워야 할 기초적인 표현기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삼묵법(三墨法)(그림 26) 은 한 번에 농묵(濃墨 : 진한색의 먹), 중묵(中墨 : 중간색의 먹), 담묵(淡墨 : 옅은색의 먹)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다. 삼묵을 한꺼번에 표현할 때는 먼저 붓을 물에 담가 충분히 적신 후 붓의 물기를 적당히 빼고 진함 먹을 조금 묻혀 접시에서 옅은 먹을 만든다. 그 붓 끝에 다시 진한 먹을 찍은 다음 접시에서 담묵과 농묵의 중간이 되는 중묵의 층을 만든다. 그런 후 다시 끝에만 짙은 먹을 살짝 묻히면 된다. 붓을 옆으로 눕혀 측필로 그으면 삼묵의 층이 표현되는데 한 붓에서 여러 가지 먹색의 농담을 나타낼 수 있다.

발묵법(潑墨法 : 먹퍼짐 법)(그림 27)은 화선지에 먹을 뿌리고 떨어뜨리면서 번져 나가는 기법을 이용한다. 농담과 물의 양을 조절하여 번져 가거나 스며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문인화에서 즐겨 사용한다.

예를 들면 먹물이나 물감을 불어서 퍼져 나가는 번짐의 효과를 체험하기, 입으로 불기, 먹물 흘리기, 손가락으로 삐치기, 화선지를 접어 먹물에 묻히기, 우유 뿌려 그리기 등을 들 수 있다. 그 위에 채색을 하면 더욱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파묵법(破墨法 : 먹번짐 법)(그림 28)은 산수화에서 수목이나 암석을 그릴 때 쓰는 방법으로 처음의 먹이 채 마르기 전에 덧칠하여 변화를 준다.

중학교 한국화 교육에서 파묵법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의 모양을 그려서 진한 먹과 연한 먹으로 색을 칠해 농담에 따라 색의 퍼짐, 먹의 번짐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구륵법(鉤勒法 : 쌍구법)(그림 29)은 물체의 윤곽을 가늘고 엷은 쌍선으로 그리고 먹의 농담이나 채색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윤곽선이 없는 수묵화와 몰골화가 나오자 이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종래의 선 본위의 화법을 구륵(鉤勒)이라 하였으며 윤곽선을 나타내는 전통 화법이다.[18]

중학교 한국화 교육에서 구륵법을 지도할 때는 먼저 연필을 사용하여 밑그림

18) 강장원, 『동양화 기법』(미술공론사, 1993), p.62.

을 그리게 한 후 먹선을 넣어 채색을 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몰골법(沒骨法 : 무테법)(그림 30)은 윤곽을 그리지 않고 붓에 먹물이나 물감을 묻혀 농담만으로 그리는 방법으로 먹물만을 사용하는 방법과 먹과 색깔을 혼용해서 그리는 방법, 그리고 색깔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갈필법(渴筆法 : 마른 먹법)(그림 31)은 붓에 물기를 빼고 소량의 먹으로 그리는 필법으로 바탕 면에 붓질을 거듭 겹쳐지게 하여 표현하는 기법이다. 대표적인 예로 바위의 거친 표면이나 나무둥치, 짐승의 털 등의 질감 표현에 좋다.

1.1 지도 목표

중학교에서 다루어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기법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의 다양한 경험적 표현에서 나아가 하얀 화선지에 새까만 먹물이 스며들면서 나타나는 오묘한 조화와 더불어 붓과 물이 창조해 내는 우리 민족의 위해한 전통회화의 정신세계를 맛 볼 수 있게 한다.

1.2 지도상의 유의점

표현기법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동양화의 전통 기법에 얽매이거나 강조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한다. 고전적 작품 표현의 한 방법이었음을 이해시키는 데서 그치고 새로운 창작 표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또, 특히 이 단계에서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천천히 느긋한 자세로 개별 지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표현 지도방안

전통미술 교육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미술 문화유산의 독창적인 우월성을 발견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미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가지고 이를 발굴하며 애호, 보존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를 단편적인 지식의 이해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미를 발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내면화 과정에까지 이르도록 돕기 위한 체재와 지도 방법의 모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한국화의 지도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양의 정신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수채화와 한국화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작품 선정시 교과서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미학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미술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지역의 특수성 학습자의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의 내용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VCR, 화집, 슬라이드, 명화집, 스크랩북, 미술관, 박물관의 방문 등으로 대치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이러한 매체를 적절히 사용함에 따라 학생들의 표현 욕구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표현기법을 쉽게 이해시키거나 자극이 될 수 있다.[19]

따라서 현 교육과정에 맞춰 실제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인 한국화 학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방안을 작성하였다.

---

19) 이화진,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한국화지도방안 고찰』 (충남대석사학위 논문, 2000), pp.18~19.

<표 5>학년별 한국화 지도 내용

구분	7학년	8학년	9학년
한국화의 개념	수묵화와 수묵담채화의 차이점	재료와 소재에 따른 한국화의 종류	채색화의 역사와 종류
한국화의 특성	선의 종류와 농담과 여백의 의미	선과 농담으로 함축적인 표현	원근표현, 여백과 낙관
한국화 제작과정	수묵화 그리기	수묵담채화 그리기	채색화 그리기 추상화 그리기
아교의사용		아교의 설명	채색화 사용시 물감과 혼합하여 사용 수묵화 제작시 번지기 효과
사군자	사군자와 문인화의 이론적 설명	사군자 그리기	시, 서, 화가 일치된 문인화 모사

3. 기본기법 지도방향

학습주제 ‘선과 먹색’의 여러 가지 변화 알아보기

1) 도입 단계

(1) 학습주제 인지하기

이 학습주제는 표현활동이 아니다. 선과 먹색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선과 먹색의 성질을 알아보고, 동시에 한국화 재료와 용구의 성질도 알아 가는 학습이다.

(2) 재료와 용구 준비하기

종이는 전지를 6등분 내지 8등분하여 6등분의 경우는 세로로 길게 놓는다. 붓

은 깨끗이 빨아서 벼루나 접시의 가장자리에 걸쳐놓는다. 붓 받침대를 이용하면 좋다. 먹을 갈아서 쓸 경우에는 수평이 되게 먹을 잡고, 힘을 주지 않으며, 천천히 상하 혹은 좌우로 갈거나 원을 그리면서 간다. 먹에 힘을 주어서 갈면 먹의 입자가 굵게 갈아져서 먹빛이 거칠어지며 찌꺼기가 생긴다. 즉 먹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있다.

(3) 재료와 용구 관찰하기

종이, 먹, 붓의 성질을 시각, 촉각을 이용하여 관찰해 본다. 한국화 재료와 용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학습활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교수·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4) 붓 잡는 방법 알기

붓은 다섯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여 힘 있게 잡는다(五指 執筆法). 붓을 잡은 팔은 선을 그을 때 팔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깨와 수평이 되게 한다.

(5) 자세 바로 하기

화면과 눈 사이의 거리는 60㎝ 정도가 알맞다. 이 거리는 화면 전체가 잘 보이고 오른 손이 수평보다 다소 아래로 쳐지는 상태가 되므로, 팔꿈치의 동작에 무리가 가지 않아 붓을 쓰기가 좋으며, 팔이 피로하지 않다. 발은 30㎝ 정도 벌리고,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며, 몸에 힘을 빼고, 손에 힘을 준다. 자세가 올바르면 선에 힘이 있고, 팔이 아프지 않으며, 서예 학습과도 연관되므로 자세를 바로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6) 심호흡하기

심호흡은 몸의 힘을 모아 팔로 집중함으로써 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으며, 수업의 도입단계에 사용하면 학습에 임하는 자세를 무의식적으로 가다듬게 된다. 특히 학생들을 제어하기 어려울 때 심호흡을 시키면 효과적이다.

2) 전개 단계

(1) 여러 가지 선긋기 (그림 32)

붓에 먹물을 충분히 묻혀서 접시나 벼루의 가장자리에서 먹물의 양을 조절한다. 다음의 순서대로 한번씩 긋는다. 손목으로 긋지 말고 팔 전체를 사용해서 긋는다.

① 짙은 먹색의 굵고 느린 선
② 짙은 먹색의 굵고 빠른 선
③ 짙은 먹색의 가늘고 느린 선
④ 짙은 먹색의 가늘고 빠른 선
⑤ 옅은 먹색의 굵고 느린 선
⑥ 옅은 먹색의 굵고 빠른 선
⑦ 옅은 먹색의 가늘고 느린 선
⑧ 옅은 먹색의 가늘고 빠른 선
⑨ 옅은 먹색이 조절되어 있는 붓 끝에 짙은 먹물 묻혀서 선긋기 : 삼묵 나타내기
⑩ 삼묵선을 그은 후 물기가 줄어진 붓으로 빠르게 그어보기 : 마른 붓(갈필)으로 선긋기

(2) 굵기・속도・물기에 따른 선과 먹색의 변화 발견하기

(3) 발견한 변화에 따른 느낌 말하기

(4) 선과 먹색의 성질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한 것에 대해 토의하기

(5) 토의한 학습내용 정리하기

3) 정리 단계—학습의 내면화

정리 단계는 ① 학습내용을 개인 별로 학습장에 정리하거나, ② 학습활동의 내용을 전시할 수도 있으며, ③ 전시를 해놓고, 학습내용을 통합적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개인 별로 학습장에 정리하기

앞의 단계에서 토의한 학습내용을 각자의 학습장에 정리한다. 학습내용을 확실하게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으로 수업을 마칠 수 있다.

(2) 학습활동의 내용 전시하기

개인 별로 학습의 내면화 과정을 거친 후 학습활동 내용을 전시하여 학습 의의를 강화시키고, 학습활동에 대해 즐거움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전시는 교실, 복도, 강당, 운동장 등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통합적 활동과 연계하여 전시 장소를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전시하기에서 수업을 마칠 수 있다.

(3) 통합적 표현활동

전시와 함께 통합적 표현활동으로 학습을 재 내면화한다. 통합적 표현활동은 학습내용에 대한 감성적이며,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학습의 파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학습에 대한 열정과 여운을 남기며, 창의성을 계발해 준다. 즉, 정리된 학습내용을 다양한 창의적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학습을 재 경험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다른 교과와 통합 혹은 연계하여 지도 할 수 있다.

① 몸으로 표현하기 : 체육과와 통합 혹은 연계

② 노래로 표현하기 : 음악과와 통합 혹은 연계

③ 악기로 표현하기 : 음악과와 통합 혹은 연계

④ 이야기로 표현하기 : 국어과와 통합 혹은 연계

⑤ 역할놀이로 표현하기 등

4. 능률적 지도 자료 제작

4.1 한국화 수업의 지도계획

1) 미술지도방법의 변천

전통적인 미술의 지도 방법으로는 작품 중심의 지도 방법과 미술사 중심의 지도 방법이 있다. 작품 중심의 지도 방법은 결과로서의 미술을 중시하며, 모방적이고 정확한 묘사, 정해진 형식에 따른 고정된 표현을 유도한다.[20] 그리고 미술사 중심의 지도 방법은 미술사를 통하여 지식을 주지 교과처럼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 중심적이고 수동적인 교육,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와 경험을 존중하여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세기에 제기되면서 다양한 지도 방법에 대한 이론이 나타났다.

다우(Dow)와 카우프만(Kaufman)은 조형 원리를 통한 미술 교육을 주장하였고, 치젝(Cizek)[21]은 학생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수업을 통한 창의성 계발을 주장하였다.

치젝에 의한 창조주의 미술교육[22]은 미국 듀이(J. Dewey)의 실용주의 철학에 의한 생활주의 미술교육으로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진보적인 경향은 오와토나 프로젝트(Owatona Art Education Project)의 추진에 영향을 주었다.

이후 창조주의 미술교육은 로웬펠드[23]와 허버트 리드[24]에 의해 완성되었는

---

20) 김충식, 『한국화 그리기』(학지사, 2001)

21) 치젝(Cizek) : 치젝(Franz Cizek, 1865~1946)은 아동의 창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주의 미술교육의 선각자로 세계의 미술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http://blog.naver.com/dyddmlekswjd/100020132926

22) 창조주의 미술교육 : 어린이들은 날 때부터 어린이들 내부에 이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어른이나 외부로부터의 억압되는 일 없이 아동의 본성에 따라 계발되고 신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술교육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사조이다. 이러한 창조·표현주의 미술교육을 우리는 흔히 억압-해방론의 미술교육이라고 한다. http://kr.blog.yahoo.com/unsany79/308.html

23) 로웬펠트 : 창의성 미술교육의 전파자로 미술이 아동의 창의성과 조화로운 성장에 도움이 됨을 강조하였다. 김성희 편집『전공 미술』 (1. 미술교수법), (들풀, 2006)

24) 허비트 리드 :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집대성자로 여러 사회적 병리 현상을 교육의 개혁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성희 편집『전공 미술』 (1. 미술교수법), (들풀, 2006)

데, 로웬펠드는 심리학자 프로이드(Freud)와 진보주의 철학자 듀이의 영향을 받았으며 치젝의 뒤를 이어서 아동 중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로웬펠드와 치젝은 목적하는 바나 방법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창조주의 미술교육에 있어서 치젝은 자유방임적인 표현지도에 그쳤으나 로웬펠드는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자유표현을 통한 정서의 표출과 창의성의 발달을 도모한 점이 다르다. 한편 리드는 예술을 통한 교육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미술의 형식이나 표현 및 감상보다는 이를 통해 길러지는 창의성이나 정서 등을 강조한 것이었다.

로웬펠드의 창조적 자기표현으로서의 아동중심 미술교육은 1950년대 러시아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uik)의 발사로 인한 대대적인 교육과정 개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전반적인 교육의 흐름은 부르너[25]의 학문구조(structure of Discipline),[26] 즉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지식의 근본적인 개념구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이념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또한 발칸의 구조적 미술교육에 대한 개념의 영향을 받아서 미술교육도 타교과 교육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조직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펜실바니아 회의에 참가했던 교육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하다가 그리어(W.D. Greer)에 의해 '미술 이해에 기초한 총체적 미술 교육' 즉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27]이라는 용어로 정의되었으며, 1982년 설립된 게티 센타(The Getty Center for

---

25) 부르너 : 미국의 심리학자. 1915년 New York에서 출생, Duke 대학에서 대학원 생활을 1년간 한 후, Harvard 대학의 심리학과로 옮겨 Dr. 라실리 (Lashley, K. S.)의 지도 아래 동물의 지각에 대하여 연구했다. http://kr.blog.yahoo.com/gccc2/3205.html

26) 구조주의(structuralism) : 인간을 포함하여 세계와 사회를 총체적, 거시적,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는 방법론, 개별적 요소들을 늘 전체에 종속되기 때문에 부분적, 지엽적 변화는 전체에 한정된 영향을 줄 뿐이며 전체는 늘 고유한 법칙을 지니므로 이러한 구조연관(構造聯關)에서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편저 ≪교육학용어사전≫ p.100, 배영사, 1993, 서울.

27)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 미술실기 이외의 이해와 감상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고안하여 미술에 대한 이해와 미술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 체계적 학습 방법을 추구하였으며 제작 , 비평, 미슬사, 미학의 영역을 통해 미술 교육에서 미술의 이해, 표현, 감상의 통합적 지도를 강조하였다. 김성희 편집『전공 미술』 (1. 미술교수법), (들풀, 2006)

Education in the Arts)의 등장으로 DBAE 미술교육의 목표, 목적, 교수 및 학습, 평가 등이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었다. 총체적 미술교육은 미술실기,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의 네 영역이 커리큘럼 내에서 통합되고 연계적으로 조직된 현대적인 미술교육 지도방법이라 할 수 있다. 초창기의 총체적 미술교육에 대한 개념은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경향이 강했으나 현재에는 그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예술분야에도 그 개념 및 학습방법이 연구 적용되고 있다.[28]

DBAE의 네 분야를 통한 미술교육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키워가야 할 미적인 안목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창작능력을 신장시키고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미술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북돋우며 미술품을 볼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루 갖추도록 해준다.

사실상 DBAE는 새로운 미술교육 이론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있어온 미술교육의 여러 방법들을 통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미술교육에 미술사나 미학적 요소, 미술 비평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술교과서를 비롯하여 미술대학의 교수들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하나 개별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미술교육에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업에 걸쳐 미술사나 미학, 미술비평, 미술실기 제작이 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29]

2) 수묵화 학습지도안 작성

(1) 단원명

┌ 대단원 : 보고 나타내기

└ 소단원 : 수묵화 그리기

(2) 단원 설정의 이유

---

28) 김정・이주연 『총체적 미술교육 방법 연구』(미술 교육 학원론), (서울 : 도서출판 예경. 1998), p.232.

29) 상게서 pp.234-5.

전통적인 수묵화를 이해하고 표현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우리의 얼을 되살려 한국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한국인의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단원을 설정하였다. 수묵화는 선을 위주로 하여 여백의 효과를 살리며 먹색(농담)의 변화를 나타내는 예술이다. 학생들에게 수묵의 친숙감을 느끼도록 하고 여러 가지 수묵의 표현기법을 통하여 수묵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묵으로 학교 풍경을 그려봄으로써 학교풍경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교내 풍경과의 친화 관계를 갖도록 한다. 특히 학교 주변의 풍경들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과 표현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한다.

(3) 단원 학습의 목표

① 이해면(지식면) ;

· 수묵용구의 이름과 사용법을 안다.

· 수묵화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한다.

· 여백과 낙관의 의미를 알고 전통회화를 감상할 수 있다.

· 물의 양과 붓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화선지의 특징을 이해한다.

② 기능면 ;

·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통하여 수묵의 표현 기법을 다른 작품에 응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수묵화의 특징을 알고 먹선의 변화, 농담의 조절, 여백의 미를 살려 표현한다.

· 수묵으로 풍경화의 원근을 나타내고 그 위에 담채로 표현할 수 있다.

③ 태도면 ;

·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미술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다.

· 한국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조상들의 생활 감정이나 조형정신을 느껴본다.

(4) 지도상의 유의점

① 수묵화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알고 붓 잡는 법 등 수묵화를 그리는 기본자세에 대한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수묵화 재료와 용구의 준비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③ 너무 격식에 얽매이게 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가능하면 주제를 설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표현 기법적인 면에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④ 수묵의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반복시켜서 한 다음 그 기법들을 새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도록 한다.

⑤ 특히 화선지의 특성과 수묵의 삼투현상을 이해하며 켄트지와의 차이점을 알도록 한다.

⑥ 학교의 지형, 건물 등에서 한국적인 정취가 잘 나타나도록 하고, 강조할 것과 생략할 것을 선정하여 구상하도록 지도한다.

(5) 기타 사항(판서 계획)

① 한국 미술의 특징

· 자연의 순리(順理)를 감각화 함.

· 시대정신의 주체적 발현. (예) 호국불교, 풍속화

· 은근하고 청초함.

· 아담한 균형미

· 소박하고 꾸밈없는 솜씨

② 수묵화(水墨畵)

· 먹과 물의 배합에 따른 농담의 변화, 필력에 따른 먹선의 변화와 여백의 미를 살려 정신적인 면을 표현한 그림

③ 재료와 용구

· 문방사우 ; 종이, 붓, 먹, 벼루

· 기 타 ; 붓말이, 문진(서진), 연적, 담요

④ 수묵화의 기본자세

· 맑은 정신과 바른 태도가 중요하며, 기본자세는 쌍구법으로 붓을 잡고, 팔은 현완법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⑤ 수묵화의 표현 기법

· 구륵법 ; 대상의 윤곽선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먹이나 물감으로 칠하는 방법

· 몰골법 ; 물체의 형태를 파악하여 단숨에 먹색의 농담을 이용하여 그리는 기법

· 백묘법 ; 먹선만으로 그리는 기법

· 삼묵법 ; 농묵, 중묵, 담묵

⑥ 여백과 낙관

· 여백 ; 그려진 대상과 화면의 조화를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무한감을 느끼게 한다.

· 낙관 ; 그림이나 글씨를 완성한 후 그 위에 자신의 호나 성명의 도장을 찍는 것

(6) 한국화 참고 작품

① 인왕제색도(수묵담채/79.2×138.2cm), 18세기, 정선[30] (그림 1-1)

② 산수도(지일담채/88.2×46.5cm), 16세기, 양팽손[31] (그림 1-2)

③ 모견도(73.2×42.4cm), 15세기, 이암[32] (그림 1-3)

---

30) 정선(1676~1759) : 83년간 세상에 살면서 가장 진지하게 화업(畵業)에 정진했던 그는 문예부흥과 실학사상이라는 새물결 속에서 가장 정확한 자기의 길을 찾아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누비고 다녔으며, 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독창적인 그림(진경산수화)를 그렸다. 허영환 저 ≪겸재 정선≫ p.25 참조, 열화당, 1989.

31) 양팽손(1488~1545)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대춘(大椿), 호는 학포(學圃)이다. 그는 사대부이면서도 그림에 일가견을 보여, 안견(安堅)의 산수화풍을 계승한 〈산수도〉(국립중앙박물관)가 전한다. 이 작품은 16세기 전반 편파구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며, 은둔의 심회를 읊은 제시(題詩)가 적혀 있어 1521~45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http://100.empas.com

32) 이암(1499~?) : 조선초기의 화가. 특히, 동물 그림을 잘 그렸다고 전한다. 그리고 인종실록에는 그가 이상좌와 함께 중종의 어진을 그릴 사람으로 추천되기도 하였다고 하며, 그의 작품이 일본에 몇점 전해지면서 그가 중국 송나라 때 동물화를 잘 그렸던 모익의 화법을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④ 군선도(26.2×47.8cm), 18세기, 김홍도[33] (그림 1-4)

⑤ 추경산수, 근대, 노수현[34](그림 1-5)

⑥ 군마 (수묵담채/149×320cm), 1963년 , 김기창[35] (그림 1-6)

⑦ 무제 (수묵담채/68×65.5cm), 2005년, 홍석창[36] (그림 1-7)

⑧ 행(장지기법/53×41cm), 2004년, 김선두[37] (그림1-8)

이암의 실제 그림은 이러한 영향을 훌쩍 뛰어넘어 한국적인 정취를 물신 풍기는 독자적인 화풍을 구사하고 있다. http://kobaw.com.ne.kr/la-mgd.htm

33) 김홍도(1745~?) : 조선 후기의 저명한 화가. 그의 회화세계는 그 경향이 풍속화, 실경산수, 도석인물화(道釋人物畵) 등 다양하였으며 그 경지는 가히 신품(神品)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국적인 자연이나 생활상을 회화현장에 도입하였다. 최병식 편저 ≪동양미술사전≫ p.57 참조, 갑을출판사, 1989, 서울.

34) 노수현(1889~1978) : 동양화가. 호는 심산(心汕)이다. 실재하는 산수를 합리적인 원근법에 바탕하여 묘사하는 근대적 조형관을 보임으로써 근대 동양화단에 실경산수의 전통을 확립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산수형태를 이상화해 조형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데 치중, 웅장한 바위산의 형태미를 묘사한 것이 많다. 만년에는 산과 바위의 윤곽선에 황갈색 태점(苔点)을 사용해 화면의 장식성을 높였다. http://100.empas.com

35) 김기창(1914~2001) : 동양화가. 호는 운보(雲甫)이며, 7세 때 장티푸스로 청력을 상실한 후 언어 장애의 증세가 있었다. 김기창의 작품은 대략 다섯 단계로, 초기의 사실적 작품을 그린 구상미술 시기, 예수의 일생을 한국인의 모습으로 담은 신앙화 시기, 구상미술에서 추상으로 변하는 전환기의 복덕방 연작시기, 청록 및 바보산수화 시기, 그리고 말년의 추상미술 시기로 나눈다. 산수·인물·화조·영모(翎毛)·풍속 등에 능하며, 형태의 대담한 생략과 왜곡으로 추상과 구상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활달하고 힘찬 붓놀림, 호탕하고 동적인 화풍으로 한국화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http://people.empas.com/people/info/ki/mg/kimgichang/

36) 홍석창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활달한 필치로 그린 추상적 형상들이 답답한 가슴을 탁 틔워준다. 기운생동하는 한국의 먹과 붓의 맛이 절로 느껴지는 것. 우리의 재료를 고집한 한국화이긴 하나 그의 한국화는 고리타분한 수묵화가 아니라 현대적 미감을 확실히 구현하고 있어 모던한 공간과도 썩 잘 어울린다. http://news.naver.com/news

37) 김선두 : 중앙대학교 한국화과 교수. 전통회화인 수묵화와 채색화에 모두 능한 화가다. 현대적인 조형감각을 갖춘 그는 선과 색과 공간구성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여준다. http://www.isongart.com/

4.2 학습지도 내용 및 전개방안

수 묵 화

1. 단원명

○ 대단원 : 표현

○ 소단원 : 수묵화

2.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회화 표현 재료와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표현 활동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미술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전통 회화 작품을 통해 전통적인 표현 방법, 표현 재료와 용구, 특징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표현 활동 속에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수묵화를 지도할 때에는 화선지에 먹이 번지는 효과, 담묵에 농묵이 스며들어 번지는 효과, 농묵과 담묵이 어울려 이루어내는 효과 등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채색화를 지도 할 때에는 색을 중첩해서 칠하는 기법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 전통 회화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변형하거나 추상형으로 표현하여 다양한 색채의 효과를 나타낸 것, 재료의 성질을 살려 뿌리고 번지는 효과를 나타내거나 찢고 오려 붙여서 질감의 효과를 나타낸 것 등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3. 발전 계통

선 수 학 습	본 단 원	후 속 학 습
· 전통회화 이해 · 기법에 따른 · 표현제시 · 작품감상	· 농담의 변화 알기 (담묵, 중묵, 농묵) · 전통회화 표현기법 알기 (몰골법, 백묘법, 구륵법 등) · 수묵화 재료 특성알기 · 작품 감상	· 기법 이해 · 농담 표현 · 기법 표현 · 작품 감상

4. 지도방법 및 유의점

지도방법	▷전통 회화의 독특한 표현 형식을 이해하고 우리 전통 회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수묵화와 채색화의 특징을 살려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그에 적절한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히게 한다. ▷참고 작품의 감상을 통하여 수묵화를 바르게 이해시킨다.
유의점	▷작품 감상을 통해 전통회화의 주제와 점법, 준법, 묘법 등을 익혀 표현한다. ▷작품 감상을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표현할 때에는 재료와 용구의 성질을 알고 표현하되 표현 기법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 자유롭고 개성적인 표현이 되도록 한다.

5. 학습 목표

1.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회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것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2.작품을 감상하고 주제 표현을 위한 다양한 표현 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3.전통 재료에 대한 이해 및 전통 회화의 발전과정과 주제에 맞는 재료의 특성과 기법을 이해하며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가진다.

6. 학습 단계

차시	학습내용	학습활동	유의점, 자료	시간
1차시	이론 이론감상	수묵화와 채색화의 이론학습 참고작품을 통해 표현이해, 감상	· 교과서 · 미술 학습지 · 다양한 참고작품 · 인터넷 자료 · 책, 노트,볼펜	45분

7. 본 단원의 성격

예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의 전통적인 회화 양식에는 수묵화와 수묵 담채화, 채색화가 있다. 대상에서 느낀 미적 감정을 표현할 때,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작가의 주제에 대한 시각이나 생각, 표현 기법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으로 구상되어 개성적인 작품으로 표현된다.

이 단원에서는 수묵화의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표현 기법을 익혀 표현해 봄으로써 우리의 전통 회화를 폭 넓게 이해하는 동시에 수묵 표현을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8. 학생실태

◎구분 - 회화와 조소, 디자인, 서예에 대한 선호도 조사

◎영역 - 회화와 조소의 선호도 차이

◎조사방법 - 면접법

◎실태 - 72%는 회화, 28%는 만들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화 중에서도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생활화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약 10%는 제재에 상관없이 회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분석 및 지도 대책

- 전통 회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처음 이루어지는 만큼, 기초적인 지식과 기초표현 방법에 대한 지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창의력을 존중하여 다양한 표현방법과 제재의 선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되어야 한다.
- 전통 회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는 없었지만 회화는 계속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서양 회화와 전통 회화의 공통적인 요소를 부각시켜 전통 회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적인 데생 능력과 색채감각은 전통회화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9. 단원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

차 시	학 생	교 사
1차시	필기도구	인터넷 학습자료 프리젠테이션 자료 참고작품 형성평가 수행평가

10. 교수·학습 과정안

영 역	표 현	제 재	수묵화와 채색화	차시	1/1
학습목표	1. 한국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2. 전통회화 작품을 감상하고 주제 표현을 위한 다양한 표현 기법과 재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본시학습내용		수묵화와 채색화의 특징 및 기법		차시	1/1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입 (5)	·출석점검 ·동기유발	◎출석 점검 및 상호 인사 ◎선수 학습 확인 ◎단원 소개 -수묵화와 채색화 ◎학습목표 제시	▷학습 내용 인지 ▷학습 목표 인지	교과서
전개 (30)	·한국화의 특징 ·한국화의 재료 ·한국화의 표현,기법 ·작품감상	◎한국화의 특징 설명 -선과 여백의 미 -그리는 뜻을 중시 등 ◎한국화 재료에 따른 분류 설명 -벼루, 붓, 먹, 종이 등 ◎한국화 표현 방법 기법 설명 -몰골법, 백묘법, 구륵법 등 ◎한국화 작품감상	▷한국화 특징을 이해 ▷한국화 재료와 용구에 따른 특징을 이해 ▷사용법 및 특성을 이해 ▷참고 작품을 보고 표현 방법 이해	·파워포인트 ·다양한 참고 작품 ·다양한 표현 작품을 통해 수묵화 재료의 특성과 기법을 이해하도록 지도

본시학습내용		수묵화와 채색화의 특징 및 기법		차시	1/1
단계	학습요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입 (5)	· 출석점검 · 동기유발	◎출석 점검 및 상호 인사 ◎선수 학습 확인 ◎단원 소개 -수묵화와 채색화 ◎학습목표 제시	▷학습 내용 인지 ▷학습 목표 인지		교과서
전개 (30)	· 한국화의 특징 · 한국화의 재료 · 한국화의 표현,기법 · 작품감상	◎한국화의 특징 설명 -선과 여백의 미 -그리는 뜻을 중시 등 ◎한국화 재료에 따른 분류 설명 -벼루, 붓, 먹, 종이 등 ◎한국화 표현 방법 기법 설명 -몰골법, 백묘법, 구륵법 등 ◎한국화 작품감상	▷한국화 특징을 이해 ▷한국화 재료와 용구에 따른 특징을 이해 ▷사용법 및 특성을 이해 ▷참고 작품을 보고 표현 방법 이해		· 파워포인트 · 다양한 참고 작품 · 다양한 표현 작품을 통해 수묵화 재료의 특성과 기법을 이해하도록 지도

평가 및 정리 (10)	· 학습내용 정리 · 차시예고	◎한국화의 특성 및 종류, 재료의 특성 보충 설명 ◎형성 평가 제시 ◎차시 예고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하기 ▷질문에 답하기 ▷차시 수업 확인	· 문항제시 · 다음 수업 준비물 기록

11. 학습 문제

단 원	수묵화
작성일자	*2005* 년 *1* 월 일 요일
작 성 인	과 학년 번 성 명

(1) 한국화와 서양회화의 다른 점을 조사해 보고 한국화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

(2) 수묵화의 재료와 용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재료의 특성을 알아보자.

(3) 한국화의 표현 기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4) 사군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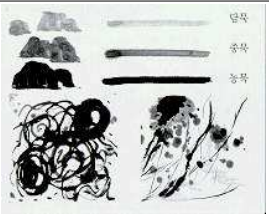
♣ 수묵으로 표현된 미술품을 감상해 보자.

가. 인터넷 활용하기
나.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하기.
다. 신문, 잡지 스크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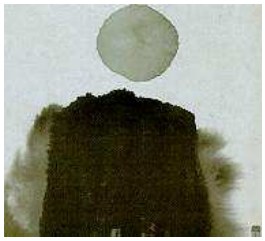
12. 자료 활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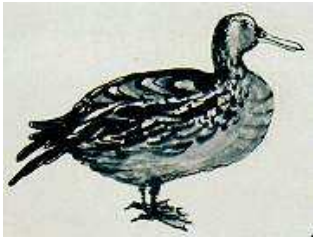
♣자료 활용 계획♣
1. 한국화의 특징 가. 선과 여백의 미를 중시 나. 그리는 뜻을 중시, 정신적인 면을 중시 다. 선과 여백의 미 라. 한국의 전통, 생활 구조, 풍토의 표현 2. 한국화의 분류(재료) 가. 수묵화 : 먹의 농담만으로 그린 그림 나. 수묵 담채화 : 먹과 함께 엷게 채색하여 그린 그림 다. 진채화(농채화) : 짙게 채색하여 그린 그림 3. 한국화의 종류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사군자, 기명 절지화, 영모화, 초충도, 풍속화 등 4. 한국화 용구와 재료 문방사우(붓,먹,벼루,종이)와 문진, 모포, 접시 등 5. 기본 묘법 가. 구륵법 : 윤곽선을 그리고 그 속을 칠하는 방법 나. 몰골법 :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먹이나 물감을 묻혀 바로 그리는 방법 다. 백묘법 : 채색하지 않고 선만으로 표현하는 기법 라. 삼묵법 : 담묵, 중묵, 농묵 마. 선염법 : 물이 마르기 전에 칠하여 번지는 효과를 내는 방법

♣ 수묵화 참고작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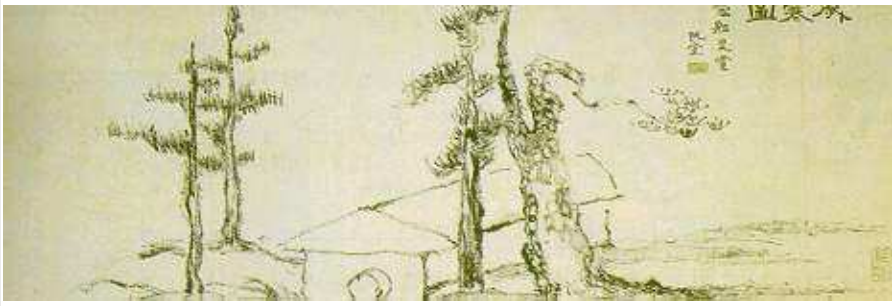
* 붓, 먹 종이의 특성익히기 붓의속도에 따른 먹선의 변화 농담과 번짐에 의한 변화 *





* 먹의 표현 *

* 사 군 자 *



김정희의 세한도

* 파적도(수묵담채)김득신(조선시대) *

만폭동도(수묵담채)정선(조선시대)

구륵법

몰골법

백묘법

13. 형성평가

(1) 한국화의 대표적인 특징 2가지만 쓰시오.

(2) 먹의 농담만을 사용하여 표현한 그림을 무엇이라 하는가?

(3)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에 먹색을 채워서 그리는 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4)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먹이나 물감을 묻혀 바로 그리는 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5)문방사우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정 답

1. 가. 선과 여백의 미를 중시
   나. 그리는 뜻을 중시, 정신적인 면을 중시
   다. 선과 여백의 미
   라. 한국의 전통, 생활 구조, 풍토의 표현

2. 수묵화 3. 구륵법 4. 몰골법 5. 붓, 먹, 벼루, 종이

14 .보충학습 및 심화학습

구 분	학 습 내 용
보충학습	◎한국화와 서양화를 비교해보고 특징을 이해한다. ◎수묵화, 수묵담채화, 진채화를 이해한다. ◎참고작품을 통해 표현방법 이해 ◎사용법 및 특성을 이해하고 문의사항을 질문 ◎수묵재료의 특성 이해한다.
심화학습	수 ◎수묵으로 다양한 표현하기 - ◎삼묵 농담내기 -번 ◎번지기, 흘리기, 뿌리기 - ◎다양한 점·선 그려보기 - ◎소금이나 아교를 이용한 표현 - ◎몰골법, 구륵법, 백묘법 등 표현 방법 익히기

15. 평가 단계

☞ 평가 관점

① 전통 회화의 독특한 표현 형식을 이해하고 재료와 용구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② 수묵화와 채색화의 특징을 살려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

③ 우리 전통 회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는가?

☞ 평가 시기

- 평가시기를 다양하게 한다. 평가는 체계적인 수업 계획에서부터 수업의

과정, 결과까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전 과정에 개입시켜야 한다. 즉, 수업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는 결과만의 평가가 아니라 사전의 진단 평가, 학습과정의 형성 평가, 정리 단계의 총괄 평가 등 수업 과정 중에서 적절한 시기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한다.

☞ **평가 방법**

① 학생의 발달을 고려하여 각 영역을 고루 평가한다.

-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의 내용을 고루 평가한다. 이 세 영역의 학습요소와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평가한다.

②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더 나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 평가는 전인 교육을 강조하고, 교사의 교수 방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의 강, 약점을 파악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적인 처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는 연구 보고서, 실기 평가, 서술형 검사,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찬반 토론법, 실험 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포트폴리오 등을 들 수 있다.

③ 평가는 학습되어진 내용의 확인은 물론이고 학습 환경의 수용 및 자기표현의 정도를 진단하는 정의적 측면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미술과는 개성의 신장과 정서의 성장을 중시하는 교과이므로 상대 평가보다는 절대 평가가 바람직하다.

⑤ 평가는 교사에 의한 평가뿐 아니라 학생들에 의한 자기 평가와 학생 상호간의 평가를 확대 시킨다.

⑥ 평가 결과의 처리는 서술형으로 하며, 그 결과는 학생이나 교사가 학습이나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

⑦ 평가는 영역별로 마련된 평가 관점에 따라 성취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5.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 교사는 미술교과의 다양한 조형 활동을 위해 전 분야의 전공 교사가 담당하여야 하나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결국 수업은 교사 자신의 전공과 연결되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서양화 전공이며 나머지 전공자들은 10~15%정도이다.

또한 시간당 45분의 수업으로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준비, 도입과 본 수업, 정리, 평가를 하게 되는데 2시간을 연속하여 밀도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화의 감상영역에 있어 절대적으로 감상 수업이 부족한 현실이다. 단지 수묵화의 설명에 이론적으로 보태기 위해 여러 화가들의 작품을 덧붙여 감상을 대신하고 있다. 이제는 수묵화와 수묵담채화 채색화에 대한 이해와 그에 적합한 참고 작품을 보여주어 그에 상응하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료와 용구에 대하여 학생들의 견해는 서양화의 준비물에 비하여 한국화 준비물은 고가이며, 준비물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먹물로 인해 옷이 더렵혀지는 것을 신경 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때는 공공으로 쓰는 것을 미술실에 갖다 두어 매번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더불어 아끼는 교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성, 일관성이 있는 지도가 이루어 져야 하나 단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일반적으로 더욱 힘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족한 교육을 학원에서 배우게 되므로, 사교육비용이 더욱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위의 문제점 외에 더욱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나 현 교육 실정에 맞지 않아 생략하고, 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서양화 중심의 수업과 교사의 전공에 치우친

실기수업, 한국화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 교과서의 계열성 부족 등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5.2 한국화 교육의 개선방안

현재의 한국화 교육의 실태를 살펴볼 때 현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전통 미술을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 한국화 영역의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부정적 전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한국화에 대한 목표와 지도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 모든 영역은 편중됨이 없이 고르게 다루어져야하고 한국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한국화의 기초기법부터 학년 단계에 맞게 지도 자료의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기법에 대한 설명문을 밝혀야 한다. 즉 한국화 실기를 할 수 있는 기법 및 용구사용관계를 좀 더 자세히 밝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지도서를 보고 이해를 하며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술 지도교사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미술과 전 영역을 고르고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교사는 드물기 때문에 미술과 전 영역을 고르게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자질 향상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에서는 중학교 미술교육 실기 강습을 '동・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주최하고 수강하도록 하여 지도교사의 자질향상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화 지도에 필요한 교구 및 용구를 구비하도록 교구 설비 기준령에 언급하여 일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학습 실정에 알맞도록 특별교실의 학습 공간을 넓혀 미술 준비실을 마련하고 교구를 보관하는 장은 물론 학생들이 준비하기에 곤란한 벼루, 모포 정도는 구비되어 실기 준비 때문에 한국화에 대한 흥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이 한국화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이유를 제거하여야 한다. 표

현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학생들이 가장 흥미 있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기법의 개발을 통해 흥미 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연구하는 자세를 통하여 스스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표현기법이 서양화에 재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수묵을 이용하여 표현한 여러 가지 참고 작품을 게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은 효과적인 한국화 학습을 위해 체계적인 지도를 원하고 있다. 이 또한 심도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해 담당교사는 인식의 전환과 관심을 통해 계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함은 물론, 교과서에서 기존의 2페이지 분량의 한국화 영역을 늘림은 물론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상 충실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오늘날의 중학교 미술교육은 서양미술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한국화를 접하는 기회가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한국화 교육의 내면적 정신세계의 표현을 강조하여 다양한 표현활동 통해 개인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우리의 전통 미술을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한국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서양화와 대등한 항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화를 서양화의 하위항목에 넣어 시간과 교제를 편성하는데 오는 문제도 들 수 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서양화에 편중되어 한국화의 실제적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에 치중한 실기 교육을 실시 할 수밖에 없고 한국화의 교육은 도외시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학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기수업시 서양화의 준비물에 비해 한국화의 준비물은 너무 무겁고 복잡하여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는 자녀의 옷이 먹물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과 한국화 재료 준비과정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한국화에 대한 인식 부족의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화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므로 지·필·묵을 쉽게 접근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상의 여건을 마련하여 한국화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넓혀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학습지도를 통하여 한국화에 대한 이해와 실기 방법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순서를 제시해 줌으로서 한국화를 바르게 이해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셋째, 서양미술의 표현방식에 익숙해 있는 학생들을 이론수업 후 곧바로 실기

수업을 실행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그러므로 실제 학습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필·묵 사용법의 설명과 학습지도를 통해 기본적인 붓의 운용과 화선지의 성질을 익힌 후 모둠별로 체본을 실시해주고 간단히 연습한 후 뎃생을 이용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밑그림에 먹선을 그린 다음 하도 위에 화선지를 붙여 수묵으로 표현하고 채색하여 완성하는 수업방법상의 모형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수업 시간의 부족으로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것이 절대적인 모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한국화를 통하여 한국적인 미를 재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학생들의 심층에 잠재해 있는 한국적인 미를 일깨우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서양화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미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유도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적절한 수업 방법을 제시하여 한국화를 교육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게 한다면 우리 민족 문화의 주체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강조되어 한국화의 발전적 방법이 모색되고 현대적 감성마저도 수용하면서 독창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장원. 『동양화기법 1』. 서울 : 미술공론사, 1997.

고미선.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한국화 내용 분석과 지도 방안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김성희. 『전공미술 (1.미술교육학)』. 들풀, 2005.

김세열. 『중등 미술에 있어서의 한국화 학습에 관한 연구』. 서울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김정 외. 『총체적 미술교육 방법 연구』. 미술교육학위론

김충식. 『한국화 그리기』. 학지사, 2001.

동아백과사전 29권. 서울 : 동아출판사, 1990.

박선화. 『중학교 미술과의 한국화 수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박정애. 『미술과 교육』. 다사랑, 2000.

신용철.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한국화 교육의 실태 분석과 지도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8

여재섭. 『수묵화』. 서울 : 형설 출판사,

연속간행물. 『가나아트』. 서울 : 가나아트, 통권 29, 1996, 1999.

이소윤. 『중학교 한국화 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이현진. 『전통 미술 교육을 통한 한국화 지도에 관한 방안』. 대구카톨릭 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이화진. 『중학교 미술 교육에 있어서 한국화 지도방안 고찰』.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0.

윤양희 외.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2001.

전희숙. 『표현력 신장을 위한 필묵법의 단계적 지도 방법 연구』. 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진조복 저, 김상철 역. 『동양화의 이해』. 서울 : 시각과 언어, 1995.
편집부. 『입시동양화』. 도서 출판 재원, 1996.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2001.

Bruce Joyce 외 저, 김종석 외 역.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성원사, 1992.

http://kobaw.com.ne.kr/la-mgd.htm
http://blog.naver.com/dyddmlekswjd/100020132926
http://kr.blog.yahoo.com/unsany79/308.html
http://kr.blog.yahoo.com/gccc2/3205.html
http://100.empas.com
http://people.empas.com/people/info/ki/mg/kimgichang/
http://news.naver.com/news
http://www.isongart.com/

부 록

(그림 1) 벼 타작 (김홍도, 18세기)

(그림 2) 서직수 초상 (이명기,김홍도)

(그림 3) 정림사지 5층탑 (7세기 중반)

(그림 4) 암각화 (청동기시대)

(그림 5) 청동거울 (선사시대)

(그림 6) 백호도 (고구려)

(그림 7) 금관장식 (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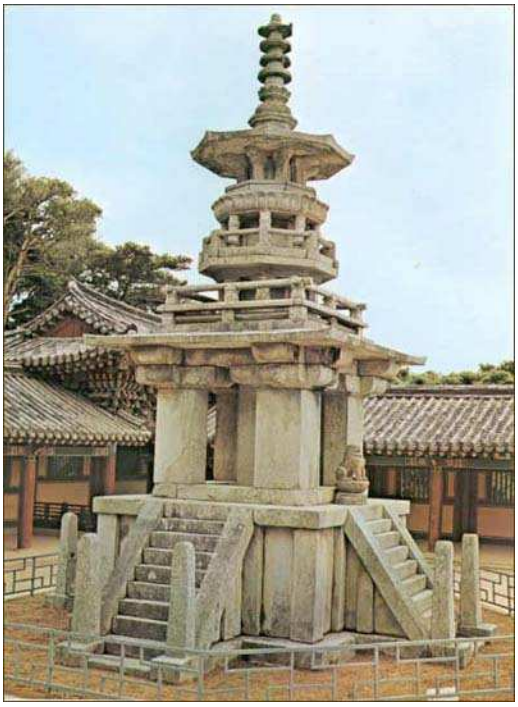
(그림 8) 첨성대 (신라시대)

(그림 9) 천마도 (신라시대)

(그림 10) 토기 (고구려)

(그림 11)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삼국시대)

(그림 12) 다보탑 (통일신라시대)



(그림 13) 11면 관음보살상
(통일신라시대)

(그림 14) 월정사 8각 9층탑
(고려시대)

(그림 15) 삼강청자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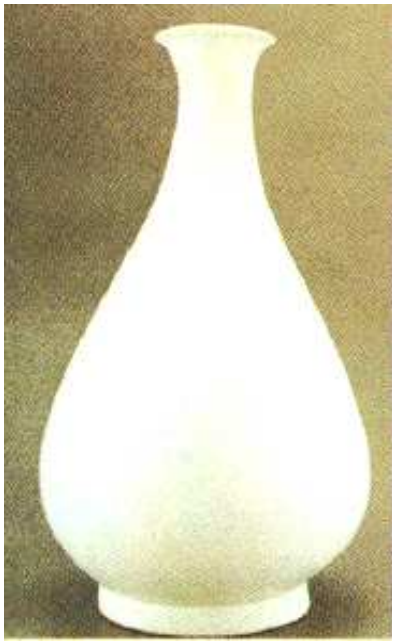
(그림 16) 수월관음도 (고려시대)

(그림 17) 향로 (고려시대)

(그림 18) 숭례문 (조선시대)

(그림 19) 분청사기 (조선시대)

(그림 20) 백자 (조선시대)



(그림 21) 초충도 (신사임당, 조선시대)

(그림 22) 죽장 (조선시대, 19세기)

(그림 23) 책장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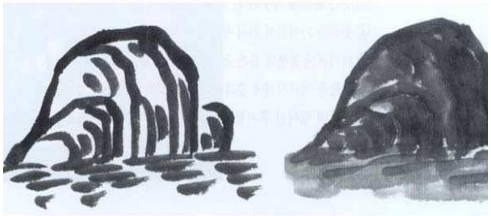
(그림 24) 달마도 (김명국, 조선시대)

(그림 25) 묘작도 (변상벽, 조선시대)

(그림 26) 삼묵법 (三墨法)

(그림 27) 발묵법 (潑墨法)

(그림 28) 파묵법 (破墨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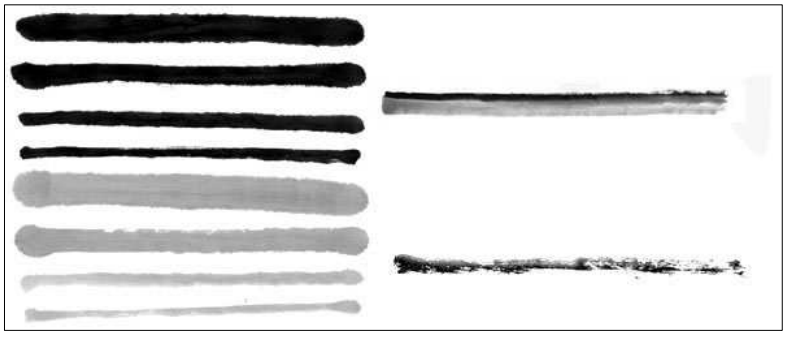


(그림 29) 구륵법 (鉤勒法)

(그림 30) 몰골법 (沒骨法)

(그림 31) 갈필법 (渴筆法)

(그림 32) 여러 가지 선긋기



①~⑩ 선과 먹색의 변화

(그림1-1) 인왕제색도 (정선, 1751년)

(그림1-2) 산수도

(양팽손,16세기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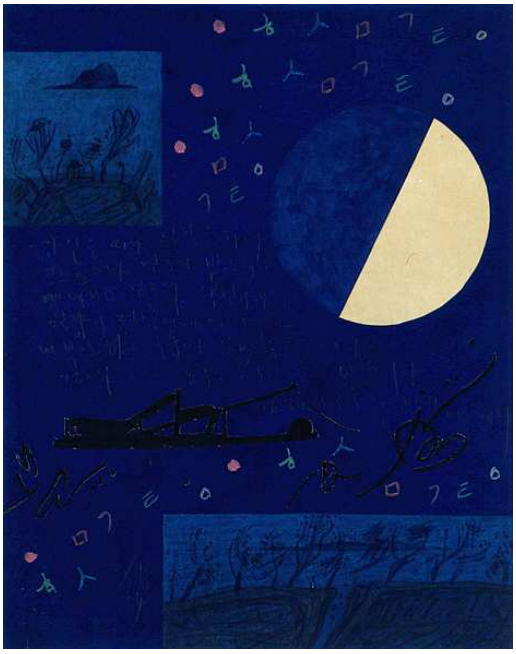
(그림1-3) 모견도

(이암, 조선시대)

(그림1-4)군선도 (김홍도, 조선후기)

(그림1-5) 추경산수 (노수현, 근대)

(그림1-6) 군마 (김기창, 1963년 작)

(그림 1-7) 무제 (홍석창, 2005년 작)

(그림1-8) 행 (김선두, 2004년 작)